



예산문제 해결방안 찾아야

▲예산문제 해결방안 찾아야
 ▲예산문제 해결방안 찾아야
 ▲예산문제 해결방안 찾아야

法대분리, 藝대신설...문제는 예산

▲법대분리, 藝대신설...문제는 예산
 ▲법대분리, 藝대신설...문제는 예산
 ▲법대분리, 藝대신설...문제는 예산

단과대 개편은 가능한가

▲단과대 개편은 가능한가
 ▲단과대 개편은 가능한가
 ▲단과대 개편은 가능한가

〈참석자〉
 최준호 김익상 연기영 교수 박선영 교수
 <사립대·교육3> <문과대·연영4> <법정대·법학과> <교무처장>
 ◇사회: 최 환 상 <사단 취재부장>
 ◇때: 1986년 3월 24일

과학특성 따른 개편시급

▲과학특성 따른 개편시급
 ▲과학특성 따른 개편시급
 ▲과학특성 따른 개편시급

중·재단측 적극적 지원 필요

▲중·재단측 적극적 지원 필요
 ▲중·재단측 적극적 지원 필요
 ▲중·재단측 적극적 지원 필요



▲법대분리, 藝대신설...문제는 예산

기부금 입학제도를 보고

▲기부금 입학제도를 보고
 ▲기부금 입학제도를 보고
 ▲기부금 입학제도를 보고

대학의 본질적 기능 상실 우려

▲대학의 본질적 기능 상실 우려
 ▲대학의 본질적 기능 상실 우려
 ▲대학의 본질적 기능 상실 우려

학문에 자본주의 논리 부조영 예상

▲학문에 자본주의 논리 부조영 예상
 ▲학문에 자본주의 논리 부조영 예상
 ▲학문에 자본주의 논리 부조영 예상

진전

▲진전
 ▲진전
 ▲진전

鹿野苑
 抗日精神
 ▲抗日精神
 ▲抗日精神
 ▲抗日精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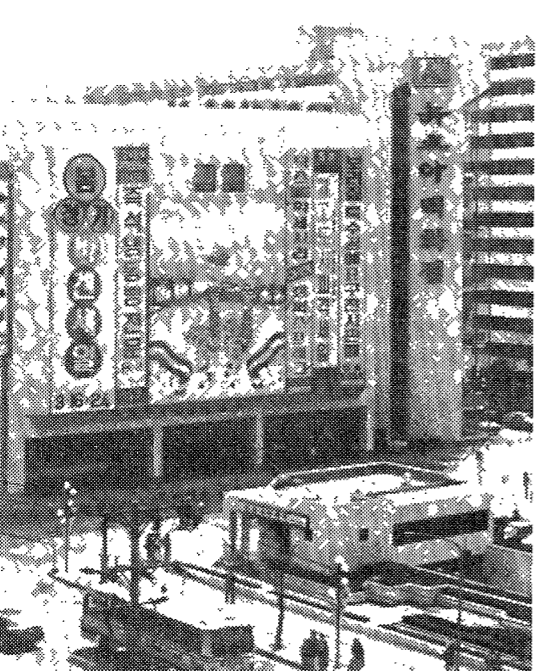
KOREAONE VOCABULARY 22000
 英作英文法演習 1200題
 全國大學學院 年中特강실시

PAGODA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外國語教育의 선구자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86년도 陸軍타행정정병모집
 軍·행정병·모집·차트·동한
 育군 참모총장 위촉서

韓國佛敎美術의 源流

한국의 불교미술은 고대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교미술이 전성기를 맞이하며, 다양한 양식의 불상과 불화, 불탑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불교미술은 고대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교미술이 전성기를 맞이하며, 다양한 양식의 불상과 불화, 불탑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求法意志의 숨결 간직

李 載 昌 교수 <佛大 불교학과>

이러한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도 불교의 본질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불교의 본질을 단순히 종교적 신앙을 넘어,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로 보는 것입니다.

▲7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신세계, 미도파가 유망했다. 그러나 79년, 롯데백화점을 필두로 80년 뉴코아, 83년 영통, 85년 그랑프리, 크리스탈, 파리스, 현대를 서문만도 총 25개로 늘어났다.

「백화점」유행과 독점자본의 產物

재벌 백화점의 모순과 실패

백화점 유행은 재벌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러나 이는 독점자본의 팽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층간의 상대적 거리감 심화

일부 中小소매상 불이익감수

백화점의 대량 판매는 소비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특히 일부 중소소매상은 백화점의 경쟁력에 밀려 수익이 감소하고, 심지어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백화점의 대량 판매는 소비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특히 일부 중소소매상은 백화점의 경쟁력에 밀려 수익이 감소하고, 심지어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불타의 길을 따라

<2> 간다라佛敎史的 의의

간다라 지역은 불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문화의 융합지로, 불교의 예술적 표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다. 특히 간다라 양식의 불상은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아,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보여준다.

그리스 神像 영향으로 佛像 조각

사와트...한대 俗人보다 승려수 더 많아

그리스의 조각 예술은 불교 조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 조각의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은 불교 조각에도 반영되어, 특히 간다라 양식의 불상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한대에서는 승려의 수가 일반 민중보다 더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Advertisement for 'Dofa' (東方奇) medicine, featuring a logo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Advertisement for 'Dofa' (東方奇) medicine, featuring a logo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Advertisement for 'Dofa' (東方奇) medicine, featuring a logo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Advertisement for 'Dofa' (東方奇) medicine, featuring a logo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Large advertisement for Daewoo Music Center. It features a group of young people holding a CD and several Daewoo stereo systems. Text includes '음악은 교양필수!' and '한번 판매한 제품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along with product models and prices.

나는 40대의 개성수이다. 지금 당신은 자전적 위해 할당 달린 상자를 들고다니며 싸우려 통개를 사고 파는 허름한 개성수를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당신의 성급한 판단이다. 난 비계로에서도 가장 큰 애견센터의 경영주이다. 그것도 생계의 수단으로만 개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월그늘(개울)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오름같이 하얀날 색색거리며 보신단 한그릇을 거머쥐며 비우는 사립을 난 가장 싫어한다.

나는 내 가게에 있는 개들을 자식과같이 생각하고있으며 손님에게 팔때에는 암나 암자를 보내는 마음으로 파는 것이다.

나의 개들은 지저분한 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개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동그란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나의 「지아와나 하안림이」 모습은 아름답다. 그것도 개성수의 비록해 보았는가? 훌륭한 형태의 개성수이다. 오늘 아침에는 이집트 원산의 「그레이트 하운드」를 내 자식으로 맞아 들였다.

이 녀는 눈은 초롱초롱하고 명기가 배어있으며 짧고 매끈한 털의 털과 긴 목에서 다리를 이어지는 시원한 선은 중세 유럽의 고대 왕자가 타던 아기 백마를 연상하게 했다.

「하운드」를 풀어주고 안아주며 이들에게는 어떤 양부모가 어울릴까 생각하는데 유리창 밖의 한 사내가 나의 눈을 끌고갔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이 사내는 구겨진 반팔 와이셔츠에 배구정장이 줄줄 흐르는 바지를 끈으로 조여 있었는데, 사내가 워낙 마른 탓도 있지만 바지는 어디서 주워입었는지 볼품없이 찢다. 누런 그의 얼굴은 어울리지 않게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다가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되어서야 그 유리창에서 지워졌다.

오늘은 「일본 스피치」가 아침부터 아팠다. 하지만 나의 정성스런 간병 덕분에 오후부터는 언제나 웃는 눈의 「차우차우」와 발장난도 하고해서 겨우 한시를 놓고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어제의 그 사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보였다.

「플루톤」을 허벅지도 명문은 알아보는 모양이다. 계속 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그 허름한 사내 때문에 더 이상 기분이 나쁘지 않게 되었다.

곱슬곱슬한 까만 털을 움직이지 않은 인형으로 작

「하운드」를 보는데 녀가 팔려 주위의 네온사인이나 하트형 램프를 비추는 것도 알지 못하듯 오셨동안 「하운드」를 보았다.

오늘도 아이들의 저녁식사 시간이 되자 사내는 어김없이 소원도우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벌써 일주일째 사내는 저녁 무렵에 나타나 「하운드」를 바라보다 밤이

이 사내는 「하운드」를 무척이나 사랑한다. 「하운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자기의 침차식보다 더 귀여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사내의 옷차림을 보아 「하운드」를 살 능력이 없다. 내가 가져 준다고 해도 「하운드」에게 좋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아버지, 이 사내가 불쌍한

그리운 그늘



김강태 <시인·79년 국문과수> 늘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있었나, 어디에 어디에 있었나... <시인·79년 국문과수> 늘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있었나, 어디에 어디에 있었나... <시인·79년 국문과수> 늘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있었나, 어디에 어디에 있었나...

東岳路

저들은 왜 저렇게 많은 입을 열고 있는 것일까. 왜 한쪽으론 쏠리고 있잖나. 꽃사이에 푸르르하고 있어 나는 그동안의 긴 밤의 향연을 잊고 있는 것일까. <시인·79년 국문과수> 늘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있었나, 어디에 어디에 있었나...

잃어버린 24시 찾을수없을까?

사랑단념하고 문학에 잔기울여

그리고 나는 한 여자를 생각하고 만날 수가 있었으며 또한 속으로만 은밀히 사랑했다. 그녀는 항상 멀리서 영거주처럼 걸어오곤 했다. <시인·79년 국문과수> 늘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있었나, 어디에 어디에 있었나...

공포

「하운드」를 풀어주고 안아주며 이들에게는 어떤 양부모가 어울릴까 생각하는데 유리창 밖의 한 사내가 나의 눈을 끌고갔다. <시인·79년 국문과수> 늘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있었나, 어디에 어디에 있었나...

나이가강하인드

를 바라보다가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되어서야 그 유리창에서 지워졌다. <시인·79년 국문과수> 늘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있었나, 어디에 어디에 있었나...



깊이서야 아쉬운듯 돌아서고 <시인·79년 국문과수> 늘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있었나, 어디에 어디에 있었나...

▲봄베기: 봄에 뻥 나

▲봄베기: 봄에 뻥 나 무 (봄베이) ▲꽃장: 가을에 여색 참나무 진달래 새모은 팔나무 ▲가시리: 풀이나 나뭇가지들 베는 길로 끝풀에서 달린 벨나무 ▲봄베기: 나 무 통베기 햇빛을 받아서 무뎠음이 좋게 된 남쪽 부분 ▲신신하다: 과실이나 채소 따위가 새롭고 생기가 있다 ▲나스르하다: 가늘고 얇으며 보드라온 풀이나 털 따위가 성기가 일매져 보이다 ▲새

▲소수들: 약간 시들어서

▲소수들: 약간 시들어서 문기가 없고 빠빠빠빠빠 모 양 ▲소수들: 뿌리 따위가 시들어서 마른모양(수 들수들) ▲땅내말다: 들이나 나뭇가지들 베는 길로 끝풀에서 달린 벨나무 ▲봄베기: 나 무 통베기 햇빛을 받아서 무뎠음이 좋게 된 남쪽 부분 ▲신신하다: 과실이나 채소 따위가 새롭고 생기가 있다 ▲나스르하다: 가늘고 얇으며 보드라온 풀이나 털 따위가 성기가 일매져 보이다 ▲새

◆유네스코학회 (K·U·S·A)

국제교류진흥인 인부특수진과 지역사회발달유인 봉사활동을한다. 행사로는 조국순례대행진, 봉사활동, 이메일제 등. <유네스코학회> 국제교류진흥인 인부특수진과 지역사회발달유인 봉사활동을한다. 행사로는 조국순례대행진, 봉사활동, 이메일제 등.

◆동북학회

1979년 창립,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신진단련과 호국정신 고취가 목적이며 현재 회원이 가장 많다. 주요행사로는 정기발표회, 부처님오신날 행사, 종교제, 사찰순례 등. <동북학회> 1979년 창립,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신진단련과 호국정신 고취가 목적이며 현재 회원이 가장 많다.

◆한·중 학술연구회

한·중학술간의 친목도모와 양국간의 문화·학술교류 및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지난 79년에 창립, 주요행사로는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중국문화소개. <한·중 학술연구회> 한·중학술간의 친목도모와 양국간의 문화·학술교류 및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지난 79년에 창립.

◆동국문화회

동국문화의 전통계승과 새로운 창조능력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매 주 실시하고 있다. 주요행사는 시·소설토론회, 시화전, 동국문화원, 신인생 배양전. <동국문화회> 동국문화의 전통계승과 새로운 창조능력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매 주 실시하고 있다.

◆동국문화회

동국문화의 전통계승과 새로운 창조능력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매 주 실시하고 있다. 주요행사는 시·소설토론회, 시화전, 동국문화원, 신인생 배양전. <동국문화회> 동국문화의 전통계승과 새로운 창조능력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매 주 실시하고 있다.

東國漫評

이제 궁극한 국제적시각의 실마리가 풀릴지 시작한다. <東國漫評> 이제 궁극한 국제적시각의 실마리가 풀릴지 시작한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신입생을 위한 紙上썬클소개 <경주컴퍼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신입생을 위한 紙上썬클소개 <경주컴퍼스>

KGB CIA
이제 궁극한 국제적시각의 실마리가 풀릴지 시작한다.
CIA
이제 궁극한 국제적시각의 실마리가 풀릴지 시작한다.

할렘 USA
미국의 광기와 타락 그리고 비열의 소용, 고모리의 현상.
할렘 USA
미국의 광기와 타락 그리고 비열의 소용, 고모리의 현상.

위대한 컴플렉스
정신분석의 수확대
위대한 컴플렉스
정신분석의 수확대

소련의輿論
소련의 침체화한 언론통제와 그 메카니즘
소련의輿論
소련의 침체화한 언론통제와 그 메카니즘

여로니

오 향 <5>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게 됩니까?

TV 소리가 재대로 안 나와요.

그림자가 새로 꾸미고 싶어요.

최운희 선생을 소개합니다.

그 소리는 음성다중 스테레오네

선천적 음악성 타고나야 성공할수 있어 우리실정에 맞는 창작오페라 적은 것 아쉬워

태초에 인간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소리라는 매개체로 저장단(高低長短)에 맞춰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기쁘거나 즐거울 때에는 우뚝이나 밝고 명랑한 가락을, 우울하거나 슬플 때에는 어둡고 애절한 가락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전승, 발전되어 음악이라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음악은 성악, 기악, 작곡 등 여러 종류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악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음악으로 인간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내용으로 가사(歌詞)라는 독특한 전달체 때문에 기타 다른 종류의 음악보다도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원래 성악은 교회의 성가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엔 구한말 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도입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성악은 발전에 따라 바리톤, 테너,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신에 맞는 올바른 발성법을 체득하여야만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소리를 토(吐)할 수 있으며, 가사는 물론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

성악을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전문적인 성악가가 될 수는 없다. 우선 선천적으로 목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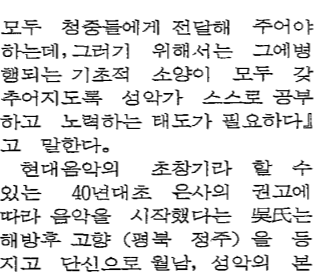
리를 타고나야하며 시창(視唱)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한 음악성내지 예술성을 갖추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국내 성악계의 원로 안亨(극립오페라단장·60세)씨는 이에 대해 『성악이라는 것은 부르는 사람의 성품은 물론 그 노래속에 사하여져 있는 사상이나 감정 등을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때부터 유학까지 미치는 동안 실로 탈듯한 고생을 많이 했으며 『그러나 다른 성악가보다 더 예술적이고 심오한 내면세계의 표현에 힘써 사람들에게 감동대를 일으켜 주려고 했다』고 지난 세월을 회고한다.

31세에 오페라 『타보렐』으로 처음 무대에 데뷔한 후, 지금까지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때부터 유학까지 미치는 동안 실로 탈듯한 고생을 많이 했으며 『그러나 다른 성악가보다 더 예술적이고 심오한 내면세계의 표현에 힘써 사람들에게 감동대를 일으켜 주려고 했다』고 지난 세월을 회고한다.

31세에 오페라 『타보렐』으로 처음 무대에 데뷔한 후, 지금까지



모두 청중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초적 소양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성악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음악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40년대 초 은사의 권고에 따라 음악을 시작했다는 안씨는 해방후 고향(영북 정주)을 등지고 단신으로 월남, 성악의 본

宋赫선생 1周年 추모 遺稿

詩碑 全文

宋赫선생 1周年 추모 遺稿

宋赫선생 1周年 추모 遺稿

서점에만 판매 제재조치 취한 당국의 의도는? 법적근거 확보...사회과학 출판사 고립

장종택
〈도서출판 일월서각 편집장〉

지난 3월12일, 당국에서는 대법원 주변에 비롯한 주요 사회과학도서 판매시점들에 대한 이른바 『이념서적』의 압수에 나서며, 한편, 이들 도서를 판매한 서점 주인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출판사와 서점들은 정부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히, 헌법으로 보장된 출판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그 부당성과 불합리를 강력히 지적, 토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당국은 작년 5월초 『금서

파동』이라 불리는 일련의 『불온서적』 및 『반공서적』 압수와 함께 관련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당국이 발표한 『반공서적』 『불온서적』 『이념서적』이란 용어의 뜻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판단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련의 조치에도 역시 많은 의혹을 느끼게 하는 점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이념서적을 만든 출판사는 정취하고 책을 판매한 서점에만 제재조치를 취한 당국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차제에 해당 출판사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

거를 확보하고 나아가 현실적 도사유동주조에서 문제의 출판사들을 분리시키므로써 사회과학 출판사들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펼쳐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불합리한 의도가 당국의 이번 조치에 내포되어 있다면 이는 현재 국제적정권법 제에 따른 국내 열세 출판사의 심각한 위축감과 위기의식에 또 하나의 철퇴를 가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나름대로 민주화투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의도와는 달리 당국에 있는 민족문화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꿈에 대한 해설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日常속에서 유유무루, 또는 예지의 신들레로 의식속에 남아있다. 현대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물질적인 것은 믿지 않는다하여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은 어떤 행이 접점하고, 좋은 꿈을 꾸면 행이 기대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꿈은 어떤 오락보다도 힘이 있고 審美的인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어 각박한 오늘날의 절거운 생활에 아닐수 없다.

▲꿈에 대한 예기는 여러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지만 먼저 크게 보면 패지꿈, 욕망 그리고 개꿈으로 볼 수 있다. 욕망, 패지꿈이야 잘 알겠지만 길은을 뜻하고 成事의 조건을 나타내는 행운의 징조이다. 한편

▲꿈에 대한 해설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日常속에서 유유무루, 또는 예지의 신들레로 의식속에 남아있다. 현대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물질적인 것은 믿지 않는다하여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은 어떤 행이 접점하고, 좋은 꿈을 꾸면 행이 기대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꿈은 어떤 오락보다도 힘이 있고 審美的인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어 각박한 오늘날의 절거운 생활에 아닐수 없다.

▲꿈에 대한 예기는 여러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지만 먼저 크게 보면 패지꿈, 욕망 그리고 개꿈으로 볼 수 있다. 욕망, 패지꿈이야 잘 알겠지만 길은을 뜻하고 成事의 조건을 나타내는 행운의 징조이다. 한편

▲꿈에 대한 해설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日常속에서 유유무루, 또는 예지의 신들레로 의식속에 남아있다. 현대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물질적인 것은 믿지 않는다하여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은 어떤 행이 접점하고, 좋은 꿈을 꾸면 행이 기대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꿈은 어떤 오락보다도 힘이 있고 審美的인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어 각박한 오늘날의 절거운 생활에 아닐수 없다.

▲꿈에 대한 예기는 여러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지만 먼저 크게 보면 패지꿈, 욕망 그리고 개꿈으로 볼 수 있다. 욕망, 패지꿈이야 잘 알겠지만 길은을 뜻하고 成事의 조건을 나타내는 행운의 징조이다. 한편

이 선천적 음악성 타고나야 성공할수 있어 우리실정에 맞는 창작오페라 적은 것 아쉬워

비교해 볼때 아직은 걸음마단계라 할 수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면 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88 올림피코페라로 『시집가는 날』을 준비, 우리의 오페라를 세계인에게 내보낼 계획이란다.

아직까지 나이에 구애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노래할 수 있는 날까지는 계속 노래하겠다고 단언한 안씨는 성악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예술인이 되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선천적 음악성 타고나야 성공할수 있어 우리실정에 맞는 창작오페라 적은 것 아쉬워

이 선천적 음악성 타고나야 성공할수 있어 우리실정에 맞는 창작오페라 적은 것 아쉬워

男女 修習記者 募集

이 時代의 빛을 찾습니다

시 験, 26일 오후 5시

① 모집인원: 서울=약간명 <사건기자 포함>
② 응시자격: 1 學年 男女在學生
③ 제출서류: 본사소장양식 1 奉(배부중)
명함판사지 1 奉
④ 원서접수: 86년 3월26일 마감
⑤ 시험일자: 86년 3월26일 오후 5시
⑥ 시험과목: 1 차 験기: 국어, 영어, 상식, 작문
2 차 験점: (1 차 験격자에 限하여 추후 公 告)
⑦ 제출처: 본사총무부
⑧ 시험장소: 학림관 J102
※學生기자에게는 規定에 依 래 小 額 의 稿 料 及 裝 幀 費 를 支 給 함 。

東大新聞社

세계가 인정한 기술 · 세계가 인정한 품질

SAMSUNG

HUMAN-TECH

인간과 호흡하는 기술 - 유민·핵심

인간이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삼성이 추구하는 기술정신입니다.

삼성엔 가전에서 통신, 로봇, 의료기기, 컴퓨터, 반도체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산업의 각 분야에서 이러한 정신을 담아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더욱 편리하게 자동화시대를 열다.

삼성엔 첨단전자기술로 자동화시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가정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신해 주는 자동화의 가수-로봇. 삼성은 "인간과 호흡하는 기술"을 통해 인간이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간을 더욱 안전하게 자연재해를 예방해 줍니다.

삼성엔 첨단전자기술로 자연재해의 공포에서 인류를 구해줍니다. 통신혁명을 가져온 광통신에서 화상통신의 시대 개막에 이르기까지 - 삼성은 "인간과 호흡하는 기술"을 통해 인간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간을 더욱 건강하게 생명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삼성엔 첨단전자기술로 여태까지 신비스럽게만 여겨지던 생명영역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사와 손잡고 첨단 의료기기, 치료장치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첨단 전자기술을 개발하는 삼성의 의료기기사업 - 삼성은 "인간과 호흡하는 기술"을 통해 인간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삼 星 電 子 三 星 半 導 體 通 信 三 星 電 管 三 星 電 子 部 品 三 星 精 密 三 星 時 計 三 星 醫 療 器 械 三 星 時 計